

선발진 호투·살아난 타격...상승세 이을까



KIA 주간전망

한화·KT·키움과 6연전 돌입
최형우·임기영 부활에 기대↑

뒤늦게 불붙은 호랑이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연승 잇기에 도전한다. KIA는 3~4일 대전구장에서 한화 이글스, 5~6일 수원구장에서 kt 위즈와 맞붙은 뒤 광주 홈으로 돌아와 7~8일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경기를 치른다.

현재 KIA는 관잖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록 가을야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지만 베테랑과 신인들의 조화로 승리를 더해가는 중이다. 지난 주 6경기 전적은 4승 2패. 최근에는 NC전 1승과 롯데전 2승에 힘입어 3연승을 거뒀다.

이같은 결과는 선발진의 활약이 컸다. 루키 김기훈과 외인 투수 터너가 1승을 따냈고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임기영도 뒤늦게 힘을 보탤다. 양현종도 에이스답게 삼성전 5.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호투했다. 이민우 역시 좋은 기량을 뽑냈다. 타선과 불펜진의 부진 탓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삼성전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수는 월랜드가 유일했다.

앞으로 타선이 제대로 터져준다면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타선에는 중심타수들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번 타자 최

형우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한다. 최형우는 4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 냈다. 최근 롯데전에는 역전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그의 타율은 0.298로 3할대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민상, 터커, 안치홍이 3할 타율을 달리고 있어 그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타선의 응집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에 만나는 상대들을 보면 전망은 더욱 긍정적이다. 9위 한화와 6위 KT와 승부를 벌인다.

첫 상대 한화는 비교적 만만한 팀이다. 팀 타율과 평균자책점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서다. 한화의 팀 타율은 0.254로 6위 KIA(0.269)보다 훨씬 뒤쳐져있다. 팀 평균자책점도 비슷한 양상이다. KIA는 4.73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화는 5.06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T는 6위로 KIA와 비슷한 전력이다. 물론 팀 타율 3위(0.278), 평균자책점 6위(4.43) 등 투타전반적인 기록은 KIA를 압도하고 있지만, 실책이 많은 점을 노린다면 불어 불만한 싸움이다.

고비는 주말에 맞붙을 키움전이다. 키움은 가을야구 티켓을 확보한 팀이다.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KIA를 상대로 8승 1무 4패를 거둔 기억도 있다. 키움전 부담을 떨쳐내려면 한화전과 KT전에서 상승세를 만들어야 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순위 ※2일 현재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127	81	45	1	0.643	-	1승
2	두산	125	77	48	0	0.616	3.5	3승
3	키움	129	76	52	1	0.594	6.0	1패
4	L G	124	67	56	1	0.545	12.5	1패
5	N C	124	62	61	1	0.504	17.5	1승
6	K T	127	62	63	2	0.496	18.5	1패
7	K I A	125	54	69	2	0.439	25.5	3승
8	삼성	122	50	71	1	0.413	28.5	3패
9	한화	124	47	77	0	0.379	33.0	1승
10	롯데	125	44	78	3	0.361	35.5	4패

양현종, 8월 MVP 후보에

린드블럼·박병호 등 4명과 경쟁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8월 MVP 후보에 올랐다. KBO(총재 정운찬)가 2일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8월 MVP 후보를 확정했다.

8월 MVP 후보는 양현종을 비롯해 두산 린드블럼, KT 배제성, 두산 페르난데스, 키움 박병호 등 총 5명이다.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5월 MVP 주인공인 양현종은 8월 평균자책점 0.51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다시 한번 KBO 월간 MVP 수상에 도전한다. 8월 한달 간 5경기에 등판해 3승을 거둔 양현종은 35.1이닝 동안 2실점(2자책)만을 허용하며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체 투수 중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양현종은 지난달 28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역대 5번째 1천500탈삼진 기록을 세우는 등 커리어 하이 시즌을 향해 순항 중이다.

7월에 이어 8월 MVP 후보에도 오른 린드블럼은 8월 한달간 총 5경기에 출전해 4승을 거뒀다. 8월에도 연승을 이어가며 8월 18일 홈 16연승으로 최다 신기록을 세운 린드블럼은 승리(4승)와 승률(1.000) 공동 1위와 함께 35이닝

동안 34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워 탈삼진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배제성은 8월 총 6경기에 등판해 4승 2패로 승리 공동 1위, 평균자책점(1.80) 2위를 기록하며 데뷔 후 처음 KBO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8월에만 4승을 보낸 배제성은 8월 3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선발승을 거두며 시즌 8승을 기록, KT 소속 국내투수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타자 후보에 오른 페르난데스는 8월 한달 간 96타수 38안타로 안타와 타율(0.396)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1일 현재 172안타로 KBO 리그 안타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페르난데스는 8월 한달간 절정의 타격감을 선보이며, 올 시즌 월별 기록 중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최근 거포의 면모를 과시하며 뜨거운 활약을 선보였다. 8월 25경기에 출전하며 박병호는 11홈런, 27타점, 장타율 0.674, 21득점(공통)을 기록하며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3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한 경기 4홈런을 쳐내는 괴력으로 단숨에 리그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서며, 시즌 홈런왕 경쟁에 불을 지폈다. 박병호는 8월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하나를 추가해 1일 현재 29홈런을 기록, 역대 두 번째 6년 연속 30홈런의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KBO 8월 MVP 선정 팬 투표는 2일부터 6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손흥민, 골 없어도 'MOM'

외신들 "대단했던 전반전" 평가

아스날과의 '복린던 데비'에서 맹활약한 손흥민(토트넘)이 외신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에 선발 출전했다.

79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팀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쇠도하던 에릭 라멜라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줬다. 라멜라의 슛을 골키퍼가 쳐냈지만 달려들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이를 마무리했다.

전반 38분에는 페넬티키크를 얻어냈다. 페넬티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이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어하자 화들짝 놀란 아스날 수비수 그라니트 자카가 태클을 시도했다.

자카의 발은 공이 아닌 손흥민을 향했고 주심은 지체없이 페넬티키크를 선언했다. 해리 케인이 페넬티키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ESPN은 손흥민에게 평점 8을 부여했다. 골키퍼 요리스와 함께 토트넘 소속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다. ESPN은 "페넬티키크를 얻기 전 세계 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그의 측면 공격은 심장박동"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였다"는 말도 곁들였다.

미라의 견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매체도 요리스와 손흥민에게만 8점을 줬다. 미라는 "전반전은 굉장했다. 많은 역습을 이끌었다. 대단했다"고 손흥민의 활약을 치켜세웠다.

손흥민은 후스코어닷컴으로부터 7.4점을 얻는 등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대다수 매체로부터 높은 평점을 이끌어냈다.

뉴시스

광주FC, 선두 굳히기 실패

안산 원정서 1-2 역전패
2위 부산과 승점 4점차로



프로축구 광주FC가 선두 굳히기에 실패했다. 광주는 1일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26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대결에서 1-2로 패배했다.

이로써 올 시즌 2패를 기록하게 된 광주는 14승10무2패(승점 52)로 선두를 유지했으나 2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48)와의 격차는 4경기로 좁혀졌다.

이날 광주는 임원상의 선제골로 기본 좋게 시작했다. 전반 26분 상대 골키퍼의 공을 가로챈 임원상은 이 기회를 살려 득점을 뽑았다.

하지만 안산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광주는 후반 27분 마사에게 실점을 허용했다. 여기에 후반 32분 펠리페가 퇴장을 당하면서 더욱 수세에 몰렸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에 1-1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마사에게 추가골을 내줬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